

# 고려 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

정 은 우\*\*

I. 머리말
II. 고려 중기 불교조각의 특징과 대중교섭
III. 고려 중기 불교조각의 북방적 요소
IV. 북방적 요소와 도상의 공유
V. 맺음말

## I. 머리말

고려 중기는 11세기 중엽경부터 13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고려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고 정착되면서 고려 후기로 계승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요, 금, 북송, 남송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교미술이 유입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요와는 서로 200번이 넘는 통상적 왕래를 통해 대장경의 유입 등 불교관계 서적들이 유통되었으며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國信物 내역 등도 밝혀졌다.<sup>1</sup>

\* 이 논문은 2007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연구과제번호: KRF-2007-321-A00007)

\*\* 동아대학교 교수

<sup>1</sup> 안귀숙,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대중교섭」, 『고려미술의 대외교섭』(2004, 예경), pp. 190-192.

이에 비해 두 나라 사이의 불교미술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은 편이다. 이는 잦은 전쟁으로 고려 중기의 불교조각이 적게 남아 있고 중요 지점인 수도 개경(개성)에 남아 있는 작품이 극히 희소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고려와 요 모두 불교를 숭상하였으며 약 100여 년에 이르는 동안 빈번한 왕래와 교류, 거란인의 귀화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또한 지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요대의 불상 전통은 금대로 이어졌다. 금 또한 고려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영향력은 계속 지속되었을 것이다. 현재 금대의 불교조각 사례가 많지 않고 연구도 적은 실정이지만 고려 중기의 북방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요, 금대의 조각으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남아 있는 고려 중기의 작품 가운데 중국과의 교섭 아래 유입되었을 작품을 소개하고자 하며 특히 북방에 위치한 요(금)대 불교조각과의 도상 및 형식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고려 중기 불교조각의 특징과 대중교섭

고려시대의 불교조각은 양식적인 특징에 의해 크게 전기, 중기, 후기의 3기로 분류해 볼 수 있다.<sup>2</sup>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고려 전기와 달리 고려 중기는 11세기 이후 요, 금, 송대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요소들을 수용, 혼합하여 형성된 양식이 유행하였다. 시기적으로는 거란과의 전쟁이 끝나고 송과의 국교를 재개하는 11세기 중엽경부터 몽고와의 전쟁이 끝난 후 다시 개성으로 천도하는 1270년경까지이다.

이 시기의 불교조각은 전체적으로 작품이 적게 남아 있어 그 계보를 잡기는 어렵지만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요, 금으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요소가 보이는 불상들이며 이는 주로 육지를 통해 유입되었다. 둘째는 송과 관련된 경상도 지역의 안동이나 봉화 등 충청남도 서천, 강진 그리고 수도인 개성 등지에 남아 있는 작품들로서 서, 남해안의 바닷길과 연관되는 점이 특징이다.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는 942년 만부교사건라든지 943년 훈요십조에 등장하는 “禽獸의 나라”라는 용어들로 미루어 10세기에는 거란과의 관계가 적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up>2</sup> 정은우,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흐름과 특징」, 『박물관기요』 22(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7. 12), pp. 73-105;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대중관계」, 『고려 미술의 대외교섭』(예경, 2004), pp. 107-152.

그 후 993년부터 시작되는 거란의 3차 침략을 불러오게 된다. 그러나 현종대(1009-1031)의 화평 이후부터 1116년 요의 연호를 중지하기까지 약 100년간 두 나라 사이에는 매년 이루어진 상시적인 사신 왕래와 더불어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불교조각에서도 강원도 지역의 고관보살상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보살좌상, 강원도 고성 출토 석조여래좌상, 석조나한상 등 주로 수도 개경과 가까운 지역에서 발견되는 불상들에서 요 또는 금과 관련된 양식의 불상들이 보인다. 따라서 요대의 다양한 불상양식이 유입되고 제작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고려 중기 대중 불교문화의 교류에서 요와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송과의 관계이다. 고려와 송의 외교관계는 이미 광종대(925-975)부터 있어 왔으나 994년 거란의 침입으로 송에 원병을 요청하지만 거절하자 단교하게 된다. 그 후 1068년 송이 다시 고려와 국교를 재개하기를 시도하면서 1072년 재개되었다. 이 시기 이후 양국과의 문화교류는 더욱 빈번해지면서 송대의 조각양식이 고려로 전해지는 촉매역할을 하였던 것 같다. 1083년 송의 대장경을 開國寺에 두거나, 개경 興王寺의 협저불상은 원풍 연간(1078-1085)에 송으로부터 전래된 것이라 하였으며,<sup>3</sup> 송의 수도인 개봉에 있는 相國寺 벽화를 직접 모사하기도 하였다. 1118년(예종 13) 4월 송의 徽宗이 安和寺에 소조16나한상을 하사했다는 기록도 전한다.<sup>4</sup> 휘종이 安和寺에 관심이 많았던 사실은 이인로의 『과한집』에 “안화사를 창건했다는 소식을 들은 송 황제가 특별히 사인을 파견하여 殿財로서 불상을 설치할 물건을 보내고 어필로 친히 쓴 全額을 써서 蔡京을 시켜 문에 걸게 했다”는 내용에서도 확인된다.<sup>5</sup> 이 사실을 그대로 해석하면 휘종은 안화사에 나한상 외에도 불상과 관련된 또 다른 재물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직접 조각장이나 관음상 등을 직접 주문하여 가져오려고 했던 기록도 남아 있다.<sup>6</sup> 또한 1115년 송에 들어가 1116년 돌아온 權適이 중국에서 돌아올 때 관음상 1幀과 법화서탑을 황제로부터 받아 귀국하여 가문의 보배로 삼았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이 관음상은 최자(1188-1270)의 할머니인 딸에게 전해졌고 법화서탑은 둘째 아들이 불도가 되어 전했다고 한다.<sup>7</sup>

<sup>3</sup> 徐兢, 『高麗圖經』 권17, 王城內外諸寺.

<sup>4</sup> 『高麗史』 권14 세가 제14 예종3 戊戌 13년.

<sup>5</sup> 李仁老, 『補閑集』 卷上: 비슷한 내용이 徐兢, 『高麗圖經』 권17 靖國安和寺와 『高麗史』 권14 세가 제14 예종3 戊戌 13년에도 전한다.

<sup>6</sup> 장동익, 『宋代麗史資料集錄』(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 393; 정은우,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려중기 금동보살입상」, 『불교미술』 18(동국대학교 박물관, 2006), p. 12.

<sup>7</sup> 崔滋, 『補閑集』.

이상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교류에 따라 불교미술이 유입되고 북송과 남송의 불상 양식이 고려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송과 연관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금동보살입상,<sup>8</sup> 개성 관음굴 석조보살입상,<sup>9</sup> 1199년에 제작된 경상북도 안동 봉정사 목조보살좌상, 안동 보광사 목조보살좌상, 충청남도 서천군 출토 금동보살좌상 등을 들 수 있다.<sup>10</sup> 남송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된 도상과 양식을 보이는 작품으로는 충청남도 해미 개심사 목조여래좌상이 1280년 이전에 제작된 작품이며 현재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개운사에 있는 아산 축봉사 목조여래좌상도 1274년 이전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중기의 불상들은 재료라든지 기법 그리고 장식기법 등에서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우수성을 보이는 작품들이 있어 주목된다.<sup>11</sup> 목조불상에서는 새로운 접목조기법의 상들이 제작되며, 삼베와 칠을 이용한 건칠불상, 따로 만들어 끼우는 영락장식을 한 보살상, 감탕기법을 이용한 머리카락이나 영락의 표현 등을 들 수 있다. 즉 고려 중기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재료와 기술, 조형성, 도상 등을 바탕으로 가장 독특하고 신선한 불교조각을 제작하고 창출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 III. 고려 중기 불교조각의 북방적 요소

고려 중기의 불교조각 가운데 북방에 해당하는 중국의 요나 금대의 불상과 연관성을 보이는 작품을 중심으로 특징 및 그 영향 관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조각은 여래상과 보살상, 나한상으로 분류하였다.

#### 1. 여래상

고려 초기에는 편단우견이라든가 오른쪽 어깨에 편삼을 두른 대의를 입은 통일신라시대의 도상이나 형식이 계승된 여래상이 유행하였다. 남아 있는 여래상의 사례도 많은 편이

<sup>8</sup> 정은우,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려중기 금동보살입상」, 『불교미술』 18(동국대학교 박물관, 2006), pp. 3-20.

<sup>9</sup> 정은우, 「개성 관음굴 석조보살상과 송대 외래요소의 수용」,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예경, 2007), pp. 193-207.

<sup>10</sup> 정은우, 앞의 논문, 『박물관기요』 22(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7. 12), pp. 91-97.

<sup>11</sup> 정은우, 「고려중기와 남송의 보살상」, 『미술사 자료와 해석』(일지사, 2008), pp. 180-212.

며 이에 비해 보살상은 적게 남아 있다. 그러나 고려 중기의 작품은 여래상이 적고 보살상은 많은 편이어서 이 시기의 여래상 형식을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고려 중기의 불상 가운데 요나 금대의 불상과 관련되는 정확한 제작연대가 있는 작품은 거의 없으며 추정하는 작품도 몇 예에 불과하다.

이 시기의 여래상은 크게 옷을 입은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오른쪽 어깨에 편삼과 변형편단우견식 대의를 입은 유형이며, 두 번째는 통견식 대의를 입은 방식이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금동여래좌상(덕3091, 덕6177), 프랑스 파리 기메박물관 소장 금동여래좌상,<sup>12</sup> 예산 천방사 금동여래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성 출토 석조여래좌상 등으로 몇 가지 면에서 동일한 특징을 보이는 작품들이 다(도 1).

이 여래상들은 얼굴 모습이나 신체의 비례에서는 다소 다르지만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은 선정인의 자세에서 동일한 모습이다. 또한 오른쪽 어깨에 편삼을 걸치고 변형통견식의 대의를 걸쳤는데 이 복견의라고도 부르는 이 형식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지만 요대만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표현상의 특징은 대의가 왼쪽 팔의 관절 부근에서 깊은 홈을 이루며 주름이 잡혀 있는 점과 노출된 가슴의 아랫부분을 수평으로 가로지른 형상의 띠 매듭이 보이는 점이다. 특히 대의는 오른쪽 어깨 위의 대의가 반달형을 이루며 왼쪽 어깨로 돌아가는데 왼쪽 팔꿈치에서 깊은 홈의 주름을 만들면서 어깨 뒤로 길게 흘러내린 것처럼 표현한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착의 형식



도 1 천방사 금동여래좌상, 고려, 충청남도 예산



도 2 안정사 금동여래좌상, 고려, 경상남도 통영

<sup>12</sup>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1999), p. 186, 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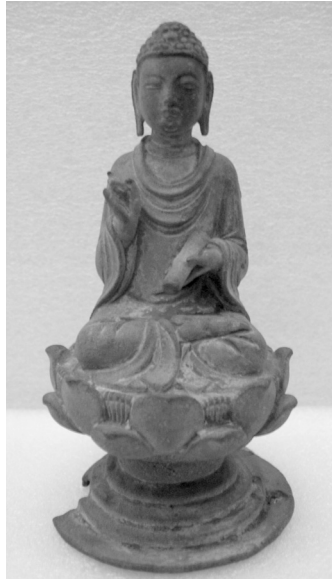


도 3-1, 3-2 금동여래좌상, 요, 상경 출토, 내몽고 팔림좌기박물관 소장

은 중국 요대에 보편적으로 성행하였던 독특한 형식으로 요대 전 지역에 걸쳐 유행하였다. 캔자스시티 넬슨 갤러리(Nelson Gallery)의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이나 1038년에 조성된 산서 성 대동의 하화엄사 소조삼세불좌상 등과 비교된다.

또 다른 유형의 불상은 통영 안정사 금동여래좌상(도 2), 수덕사 성보박물관 소장 금동여래좌상 등으로 통견식 대의를 걸친 점만 제외하면 위의 유형과 거의 흡사하다. 안정사 금동여래좌상은 몸 안에서 복장물이 발견되었고 바다면의 목조대에서 “四十二 惠威燈光佛”이라 쓰인 목서가 발견되었다. 고려적인 특징이 농후한 복장물의 내용에서 제작시기를 판단할 수 있으며 42번째라 쓰인 기록으로 미루어 53불이나 다수의 불상을 제작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여래좌상들은 얼굴이 크고 어깨와 무릎이 좁은 비례 등에서 거의 비슷한데 이는 상경 출토의 요대 금동여래좌상들과도 비교된다(도 3-1, 3-2).

이상의 두 유형의 여래상들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은 선정인 자세이거나 혹은 두 손을 맞잡은 자세를 하고 있는 형식에서 공통된다. 우리나라 여래상 가운데 선정인 여래좌상은 사실 5-6세기 불상에 잠깐 유행했으며 이후 거의 없는 도상이다. 그런데 이 고려시대 여래상들에서 갑자기 출현한 점은 매우 흥미롭다. 선정인 자세는 사실 중국의 경우 아미타불의 독특한 수인으로 오랫동안 발전하게 된다. 사방불의 서방에 위치한 무량수불 또는 독존으로서도 많이 제작되는데 앞에서 살펴 본 착의법을 하고 선정인을 한 여래상은 사실 요대의 불상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요양 백담의 감실 불상이 같은 형식이며 또한 요대에 유행했던 몸체



도 4 석당 부조여래좌상,  
요 1095, 산서성 하화염사  
도 5 금동여래좌상, 요(추정),  
함경북도 慶源郡 東原面  
林壹洞 출토, 국립중앙박  
물관 소장

에 불정존승다라니석당의 신부에 새겨진 사방불 가운데 무량수불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서성 하화염사 앞에 있는 壽昌元年명(1095) 석당의 무량수불, 경도국립박물관 소장의 1084년명 多寶千佛石幢의 신부 무량수불 등을 들 수 있다(도 4).<sup>13</sup> 이 요대의 여래좌상은 착의법이나 수인, 승각기 처리 등에서 천방사나 안정사 금동여래좌상과 비교된다. 이외에도 중경성지 출토 석조여래좌상이나 요녕성박물관 소장의 昌圖縣 八面城 鎮遼金 城址 출토의 석조여래좌상<sup>14</sup>을 보면 두 손을 무릎에 놓고 각기 두 손을 고부렸는데 마치 아미타구품인의 변형처럼 보인다.<sup>15</sup> 같은 형식이 고려시대의 높이 8.6cm의 개인 소장인 소형금동여래좌상에서도 발견된다.<sup>16</sup> 고려시대에 많이 나오는 이 여래상들을 아미타불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렵지만 설법인의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외에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함경북도 慶源郡 東原面 林壹洞 출토로 1935년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입수된 금동여래좌상이 한 구 남아 있다(도 5).<sup>17</sup> 소장카드에 고려의 작품으로 명기된 이 여래상은 손에 경권을 든 독특한 상으로서 출토 지역과 그 특징을 고찰하여 국적 문

<sup>13</sup> 『遼代多寶千佛石幢』(京都國立博物館, 1973), p. 12.

<sup>14</sup> 경기도박물관 편, 『고려 미술: 遼寧省 神奈川縣 京畿道 文物展』(2002), p. 49, 도 39.

<sup>15</sup> 정은우, 「요대 불상조각의 연구(II)」, 『미술사연구』 14(미술사연구회, 2000), p. 71, 도 50 참조.

<sup>16</sup> 진홍섭, 『한국의 불상』(일지사, 1978), p. 315, 삽도 160.

<sup>17</sup> 이 여래상(본관 13363)은 원래 조선총독부 박물관 소장품이었으며 한 번도 전시, 소개된 바 없는 상이다.

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금동여래좌상은 통견식 대의를 입고 결가부좌로 앉은 불상으로 손에 등글게 만 경권을 들고 있는 특이한 상이다. 여래상이 경권을 들고 있는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도상인데 같은 형식을 요대의 금동여래입상에서 볼 수 있으며 1022년의 금동보살상과 요녕성박물관 소장의 금동보살좌상<sup>18</sup> 역시 경권을 들고 있다.<sup>19</sup> 이 금동여래좌상은 경권을 든 도상뿐만 아니라 낮은 3단 대좌 등에서도 요대만의 특징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어 넓게는 요대의 조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함경북도 경원군은 현재 러시아와 경계를 이루는 두만강 상류지역으로 원래는 발해의 영토에 해당된다. 거란은 926년 발해를 멸망시키고 이 지역에 東丹國을 설치하여 태조 야율아보기의 장자를 동단국의 왕으로 임명하여 통치하게 하였다. 이후 2대 황제인 태종(야율아보기의 2子, 東丹國왕의 동생)과 건국 초의 투쟁 과정에서 태조 야율아보기의 장자인 동단국왕이 931년 중국 본토의 後唐으로 망명하자 동단국을 동경(현재의 요녕성 요양)으로 옮기게 된다. 동단국이 동경으로 이동해 간 후 이 지역은 거란의 직접 지배에서 벗어났다.<sup>20</sup> 따라서 옛 발해 지역은 원거주민인 발해인, 여진족이 자립하면서 거란과 혹은 고려와 일정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만일 이 지역에서 출토된 이 금동여래좌상이 거란의 작품이라면 10세기 초반경으로 볼 수 있다. 고려의 작품으로 볼 경우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고려는 14세기 중후반 공민 왕대에 이르러 함경북도 吉州 일대까지 영역을 확보하며<sup>21</sup> 경원 지역은 여진족의 거주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볼 때는 거란이나 고려보다는 여진의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러나 상의 특징으로 보면 여진보다는 거란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는데 이

18 경기도박물관 편, 『同과 異: 遼寧省 神奈川縣 京畿道 文物展』(2002), p. 48, 도 38.

19 경권을 든 보살상의 경우 문수보살로 해석한다. 대영박물관 소장의 금대의 석조문수보살상 역시 손에 경권을 들고 있다. 특히 요대에는 문수신앙이 유행하였던 점도 참고 된다. 그러나 여래상의 경우는 매우 독특하여 정확한 존명을 알기 어렵다.

20 『遼史』 卷38 地理2 東京조에 지금의 연해주 지방이 거란의 영토로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10세기 초반에 해당된다: 金涇顯, 『東丹國考』, 『宋遼金元史研究』(2000)(『거란사회문화사론』[2004], pp. 238-239 재수록); 『거란 동방경략사연구』(명지대학교 출판부, 2004), pp. 33-61.

21 『高麗史』 卷58, 地理3 東界 吉州;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0, 咸鏡道 吉城顯 建置沿革, 古跡조 참조. 고려의 영역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가는 12세기 초 예종대 정벌 당시 개척한 지역에 새로 설치한 9城 중 가장 북쪽에 설치했다는 公嶮鎭을 어디로 보는가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공험진의 위치를 어디로 비정하는가는 『高麗史』와 『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되던 15세기에도 논란이 있었으며 근대 한국사학이 시작된 20세기 이래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윤관이 설치했다는 9성의 위치는 공험진을 제외하면 북쪽에 설치된 것은 吉州, 雄州, 英州이며 이들 3곳은 모두 조선 초에 길주로 편입되었다. 공험진의 위치를 어디로 보든 고려시대에 함경북도 경원 지역과 두만강 이북지역의 주거주민이 여진족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경우 몇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여진의 땅에 정착해 살던 거란족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거란인은 고려로 망명해 와서 정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거란 국가가 존속하던 시기에 거란인들이 국가를 수립하기 전의 여진족 사회로 망명하여 정착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기록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거란으로부터 받은 하사품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당시 여진족은 요에 조공을 바쳤는데 돌아올 때에는 일상용품이나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문화적 수준이 높은 물품을 받아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거란은 여진족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유력한 여진족의 추장에게 선물로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sup>22</sup> 마지막은 여진이 금을 세운 후 거란의 양식을 계승한 불교조각을 제작했던 점에서 금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현재까지 비슷한 계통의 금대 여래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 2. 보살상

고려시대의 보살상 가운데는 머리에 높은 원통형 보관을 쓴 상들을 비롯하여 백의관음, 천수관음 등 특히 다양한 형상의 관음상들이 많아 주목된다.

먼저 원통형 보관을 쓴 보살상은 주로 강원도 명주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되



도 6 한송사지(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 부분, 고려,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도 7 소래산 선각마애보살입상 부분, 고려, 경기도 시흥

<sup>22</sup> 김구진, 「원대 요동지방의 고려군민」, 『이원순화갑기념사학논총』(교학사, 1986)

었으며 탑 앞에 무릎 꿇은 자세의 공양자세를 한 모습이 특이하다. 한송사지 탑과 월정사 탑 앞의 석조보살좌상, 강릉 신복사지 탑 앞에 놓인 석조보살좌상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특히 높은 원통형 보관 뒤로 두건을 늘어뜨린 점이 특징이다(도 6).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소래산 선각마애보살입상은 거대한 암벽에 얹은 선각으로 새긴 상이다(도 7). 이 상 역시 원통형의 높은 보관을 썼는데 보관 안에는 연화당초문을 새겼으며 관대가 양측으로 훑날리는 형상이다. 강원도 지역의 이 상들에 대해서는 현재 10세기로 보거나 또는 11세기의 작품으로 편년하는 등 몇 가지 의견들이 개진된 바 있다.<sup>23</sup> 보살이 쓰는 보관 형식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낭산 출토 석조보살입상에서부터 보이지만 실제적인 유행 시기는 고려시대 부터이다.

이러한 높은 보관은 원래 당대부터 보이는 특징으로 이르게는 사천성 포강의 보살상들에서부터 시작하여 874년경의 법문사 출토 은제도금보살상을 비롯한 당말 오대기의 작품들에서도 볼 수 있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후 요대로 직접 계승되면서 보편적이면서 일반화된 특징으로 크게 유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산서성 하화엄사에 안치된 소조보살상들은 거의 비슷한 원통형의 높은 보관을 쓰고 있으며, 이는 북경고궁박물관 소장 하북성 출토 금동보살좌상, 내몽고 巴林左旗와 巴林右旗를 비롯한 요대의 상경, 서경 등지에 있는 요대의 보살상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와 같이 요대에는 높은 보관 또는 좀더 낮은 원통형 보관들이 많이 제작되는 점이 특징으로 이는 위에서 살펴본 고려 전기 보살상의 보관과 연관된다.

고려시대의 관음상은 보관에 화불이 있고 손에 연꽃을 든 관음상은 물론 머리에 백의를 쓴 백의관음, 천개의 손을 가진 천수관음 등 독특한 형식의 작품들이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이는 고려시대에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 같은 우리나라에만 유행했던 관음 관련 특수한 진언이 유행하는 등 보다 다양하게 신앙되었기 때문이다.<sup>24</sup> 특히 관음상은 전란에 대비하거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또는 다양한 치유를 위한 신앙으로 유행하게 된다. 실제 고려시대에는 거란의 침입, 몽고족의 침입, 홍건적, 왜구의 침입 등 많은 전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관음신앙이 유행하였으며 상도 많이 제작되었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금동관음보살좌상(덕수5210)은 1915년 3월 박물관에 입수된 작품으로 15.6cm 대좌 높이 5.3cm의 소형보살상이다(도 8). 원통형 보관을 쓰고 보관에는 화불이 있으며 원형장식이 7개 부착되어 있다. 왼손에는 연봉오리를 들었으며 왼쪽 어깨

<sup>23</sup> 최성은, 「명주지방의 고려시대 석조보살상에 대한 연구」, 『불교미술』 5(동국대학교 박물관, 1980), pp. 56-71; 권보경, 「고려전기 강릉일대 석조보살상 연구」, 『사림』(수선사학회, 2006. 6), pp. 114-149.

<sup>24</sup> 강호선, 「불교사상과 신앙의 사회화」, 『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전통의 흐름』(국사편찬위원회, 2007), pp. 212-215.



도 8 금동관음보살좌상,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9 금동보살좌상, 오대 939,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에 두텁게 천의를 두른 반면 오른쪽 팔에는 옷자락이 없는 착의법이 특징적으로 마치 천의와 대의식을 합쳐 놓은 듯하다. 이러한 옷을 입은 보살상은 그 예가 매우 드문 편인데 북경 수도박물관 소장의 요대 금동보살좌상에서도 볼 수 있다.<sup>25</sup>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보살상과 비슷한 상이 이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소장으로 현재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조선고적도보』에 사진만 남아 있는 동조보살좌상이다.<sup>26</sup> 이 두 상의 공통점은 원통형의 낮은 보관과 보관 띠에서 시작하여 어깨 부분에서 하나의 작은 매듭을 형성하고 이어서 팔꿈치까지 늘어진 모습과 3단으로 형성된 낮은 팔각대좌 형식이 특징이다. 대좌의 상대는 이중의 양련이 활짝 피어 있고 중대와 하대는 원형이나 팔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형식의 시원은 당대이지만 오대를 거쳐 요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그중 런던 대영박물관의 소장의 금동보살좌상과 비교해 보면 보관에서 늘어진 매듭이 있는 관대, 둥그란 얼굴에 통통한 뺨, 3단으로 이루어진 대좌 형식에서 거의 흡사하다. 같은 유형의 명문상으로 대좌 뒷면 중대에 “永隆元年奉 新造金銅像”의 음각명이 있어 939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동경국립박물관 소장의 금동보살좌상이 있다(도 9).<sup>27</sup> 따라서 이러한 보살상은 10세기 오대와

<sup>25</sup> 北京首都博物館 編, 『古代佛像藝術精品展』(北京出版社, 2006), p. 22.

<sup>26</sup> 이 보살상에 대해서는 정은우, 「고려전기 금동보살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228·229(한국미술사학회, 2001), pp. 21-22.

<sup>27</sup> 이 상은 한국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여 고려의 불상으로 추측하기도 하지만 영릉이 남중국인 궤(893-945)의 연



도 10 금동백의관음보살입상, 고려,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도 11 금동백의관음보살입상, 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박물관 소장

요대에 유행했던 형식임을 알 수 있으며 고려에도 전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외의 특수한 도상으로는 백의관음상을 들 수 있다. 백의관음은 국립춘천박물관 소장의 흥천 출토 금동백의관음보살입상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금동백의관음보살입상(높이 5.3cm, [덕1728])이 매우 비슷한 사례이다.<sup>28</sup> 10.5cm의 흥천 출토 금동백의관음보살입상(도 10)은<sup>29</sup> 길쭉한 불신에 역시 머리에 백의를 두른 모습인데 작은 방형의 2단 대좌에 배 앞에 모은 두 손에 연봉오리를 잡은 모습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 소장의 요대 금동백의관음보살입상이나 묵덴(심양) 출토의 요대 금동관음보살입상과 거의 흡사하다(도 11).<sup>30</sup> 또한 2단으로 이루어진 방형의 대좌도 요대의 입상에서 일반적으로 유행하였던 형식으로 요와 관련된다.<sup>31</sup>

호인 점과 이 나라의 연호를 고려가 사용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보면 중국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고려는 933년 後唐(923-936)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후 주로 북중국인 後晋(936-947), 後漢(947-950), 後周(951-960)에 조공하고 책봉을 받았기 때문이다.

<sup>28</sup> 이외에도 국립진주박물관 소장의 대야 안에 선각으로 새겨진 백의관음도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정은우, 「조선후반기 조각의 대외교섭」, 『조선후반기 대외교섭』(예경, 2007), pp. 193-199.

<sup>29</sup> 국립춘천박물관 소장의 두 백의관음상의 도판은 『국립춘천박물관』(통천문화사, 2002), pp. 98-99 참조.

<sup>30</sup> 정은우, 「요대 불상조각의 연구(II)」, 『미술사연구』 14(미술사연구회, 2000), p. 81, 도 60 참조.

<sup>31</sup> 요대 불상의 방형대좌로는 일본 新田氏 소장 금동보살입상, William Rockhill Nelson Gallery of Art 소장 금동보살입상 등 다수가 전한다. 唐彩蘭 編著, 『遼上京文物圖英』(遠方出版社, 2005), p. 30.

백의관음은 원래 밀교에서 발달된 듯 주로 밀교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데 선무외(637-735)의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이나 불공(705-774)의 『提所說一字頂輪王經』 권2<sup>32</sup>에 언급되어 있다. 597년에 쓰여진 「觀世音現身施種種願現除一切病陀羅尼」 『陀羅尼雜集』 권 10<sup>33</sup>에도 “用作觀世音像 身著白衣坐蓮花座上一手捉蓮花 一手捉藻瓶 使髮高堅”라 하여 비슷한 내용이 쓰여 있다. 즉 경전에 언급된 백의관음은 흰옷을 입고 연화좌 위에 앉아 한 손에는 연화를, 한 손에는 조병(정병)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경전의 내용은 실제의 작품에서도 그대로 표현되었음을 위에서 살펴 본 고려나 요대의 백의보살상에서 알 수 있다. 즉 자세에서는 좌상과 입상 등 다양한 모습이지만 머리까지 천을 두르고 손에는 연화나 연봉오리를 든 백의관음상인 것이다. 더욱이 요대에는 太宗이 幽州 大悲閣에 있는 백의관음상에 예불하였다는 기록 등 백의관음 신앙이 크게 유행하였다.<sup>34</sup>

### 3. 나한상의 제작과 유행

고려시대에는 국가에서 여는 나한제가 26번 개최되었으며 특히 고려 중기 천태종과의 관련 속에서 더욱 성행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나한의 힘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거나 기복을 원하는 등 국가나 개인을 위한 보편적인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나한에 대한 언급은 고려시대에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등장한다. 고려 태조가 개태사를 창건하면서 나한의 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16나한이나 500나한 등의 명칭과 재를 올린 기록 등도 보이며, 각종 문집에서도 나한신앙과 작품에 대한 많은 글을 남기고 있다.<sup>35</sup> 나한상의 제작에 대한 기록도 보인다. 중국의 후량과 송으로부터 나한상이 들어 왔다가,<sup>36</sup> 송에서 보내 온 16나한상을 개경 안화사에 모셨다는 기사도 있다. 이외에도 1179년 임춘의

<sup>32</sup> “畫白衣觀自在 以蓮花髮莊嚴其身”

<sup>33</sup> 『新修大藏經』 『陀羅尼雜集』 卷第十 1336항

<sup>34</sup> 『遼史』 卷49, 志18 禮志1; 정은우, 「고려시대의 관음신앙과 도상」, 『불교미술사학』 8(불교미술학회, 2009), pp. 113-127.

<sup>35</sup> 고려시대의 나한신앙과 나한상에 대해서는 정병삼, 「고려와 조선시대의 나한신앙」, 『구도와 깨달음의 성자 나한』(국립춘천박물관, 2003), pp. 154-165; 최성은, 「우리나라의 나한 조각」, 『구도와 깨달음의 성자 나한』(국립춘천박물관, 2003), pp. 158-162; 정우택, 「나투신 은자의 모습」, 『구도와 깨달음의 성자 나한』(국립춘천박물관, 2003), pp. 166-179.

<sup>36</sup> 『高麗史』 卷1 태조 6년 계미조.



도 12 개경 영통사 조성 청동  
빈도로존자상, 고려,  
경기도 화성 출토,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도 13 석조나한좌상, 고려,  
전 인천 강화 출토,  
직지사성보박물관 소장

「묘광사 십육성중회상기」라든지 「자비령 나한당」, 「회암사 나한전」 등의 기록이 남아 있어 전국적으로 나한전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37</sup> 이때의 나한전에는 복령사 16나한상 등의 기록으로 볼 때 대체로 16나한상을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500나한상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고려시대의 나한상들은 한두 구씩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는 정도이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나한상은 높이 42cm의 경기도 화성 출토로 현재 국립전주박물관 소장인 청동빈도로존자상이다(도 12).<sup>38</sup> 대좌 바닥에 쓰여진 “第一賓度盧尊者 靈通寺依口僧口 造成”이라는 명문을 통해 개경 영통사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16나한 가운데 제1존자인 빈도로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1027년 창건된 영통사는 천태종 사찰로서 대각국사 의천이 머물렀던 사찰로 유명하다. 방형의 대좌에 마르고 기다란 체구, 머리에 쓴 두건 등이 특징이며 손에는 불자를 들고 있다.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높이 18cm의 석조나한두상과 높이 49cm의 석조나한좌상, 전 인천 강화도 출토로 전하며 현재 직지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높이 45cm의 나한좌상 등도 중요한 고려시대 나한상들이다(도 13). 직지사 성보박물관의 나한좌상은 손에 호랑이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 동국대학교 박물관의 나한좌상과 함께 원래는 서울 돈암동 보문암에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두 구 모두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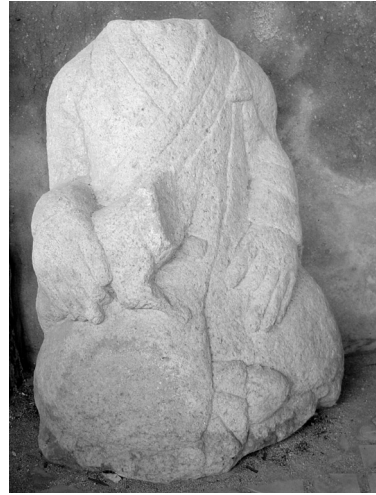
37 정병삼, 위의 논문, 『구도와 깨달음의 성자 나한』(국립춘천박물관, 2003), pp. 160-161.

38 국립춘천박물관 편, 『구도와 깨달음의 성자 나한』(2003), 도 20.

는 얼굴에 통통한 뺨에서 동일한 모습이다.<sup>39</sup> 현재 원주시립박물관 소장 강원도 원주 용운사지 출토 35cm의 석조나한좌상도 비슷한 두건을 쓰고 있으며 두 귀가 두건 속으로 가린 점도 공통적이다.<sup>40</sup> 이상에서 살펴 본 나한상들은 호랑이를 지물로 든 점에서 16나한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수리가 둥글고 머리에서 어깨까지 내려오는 두건을 쓴 점에서 동일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나한상은 16나한 또는 18나한, 500나한 등으로 분류되며 중국의 오대에서 북송에 이르는 시기에 주로 강남지방을 중심으로 성행하였던 도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강남만이 아니라 중국의 북방지역인 요나금대에도 나한상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하북성 이주 출토로 전해지는 요대의 삼채나한상들을 비롯하여 중경북탑 출토의 나한상, 호랑이를 잡고 있는 상경 내몽고 출토의 석조나한좌상이 있으며(도 14), 금대에도 계속 나한상들이 출토되고 있어 나한상의 제작과 신앙은 송만이 아니라 북방에서도 꽤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41</sup>

중국의 오대로 추정되는 나한상에서는 두건을 쓴 작품들은 보이지 않는데,<sup>42</sup> 북송시대의 16나한이나 18나한 가운데는 복두의 나한이라고 부르는 상이 포함되어 주목된다. 몸에 두른 옷으로 머리까지 뒤집어 쓴 마치 달마와 같은 모습의 나한들이다. 이는 고려시대 두건을 쓴 나한상과는 구별되는 특징으로 절강성 항주의



도 14 석조나한좌상, 요, 내몽고 파림작기 박물관 소장



도 15 保聖寺 소조나한좌상, 송 1008-1016, 강소성 오현

<sup>39</sup> 국립춘천박물관 편, 앞의 책(2003), 도 26, 28, 29.

<sup>40</sup> 국립춘천박물관 편, 앞의 책(2003), 도 86.

<sup>41</sup> 정은우, 「남양주 홍국사의 조선전기 목조16나한상」, 『동양미술사학』 10(2009. 6), pp. 148-149.

<sup>42</sup> 오대의 나한상에 대해서는 최성은, 「항주 연하동석굴 18나한상에 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190·191(한국미술사학회, 1991. 9), pp. 161-192.



도 16 조양 남탑 출토 나한좌상, 요,  
조양시박물관 소장

옥류동 18나한상이나,<sup>43</sup> 大中祥符 연간(1008-1016)의 강소성 保聖寺 18나한(도 15), 治平 3년(1066) 산동성 영암사 나한상 등에서 보이는 오대에서 송대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들이다.<sup>44</sup> 이 시기 두건을 쓴 작품으로는 나한상보다는 오히려 승려상이나 지장보살상 등에서 보인다. 대중상부 6년(1013)에 제작된 소주 호구 운암사탑의 寶幢 안에서 발견된 선정인에 두건을 쓴 조사상이 있으며<sup>45</sup> 오대·송 초기인 10세기에 사천성, 감숙성 등지에서 제작된 지장보살상이 있다. 그러나 피건형 지장상은 10세기를 지나면서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같은 형식의 두건은 요대의 나한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양 남탑에서 출토된 나한좌상을(도 16) 비롯하여 승려들이 두건을 쓴 모습을 쉽게 볼 수 있

며 금대의 산서성 출토 석조나한상 역시 머리에 두건을 두른 예이다.

즉 나한신상은 오대와 송을 비롯하여 북방지역인 요대에까지 보편적으로 유행했던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한상의 표현에 있어 송대에는 북두의 나한상이 유행했으며, 요대에는 오히려 두건형 나한상이 제작되었다. 따라서 요를 비롯한 북방지역에서의 피건형 나한상과 고려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 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V. 북방적 요소와 도상의 공유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불교조각 가운데 북방으로부터 유입되고 공유했던 독특한 도상인 두건을 쓴 형식과 보관에는 화불을 손에는 연꽃을 든 관음상을 중심으로 그 유입배경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sup>43</sup> 『飛來峰造像』(文物出版社, 2002), 도 56.

<sup>44</sup> 李松主 編, 『中國史觀圖說全集』2(黑龍江文物出版社, 2005), p. 30, 도 4, p. 74, 도 21.

<sup>45</sup> 蘇州博物館 編著, 『蘇州博物館藏 虎丘云岩寺塔 瑞光寺塔文物』(文物出版社, 2006), p. 137.

## 1. 피건상과 요와의 관계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려 중기의 작품들 가운데는 머리에 두건을 쓴 피건형들이 많아 주목된다. 강원도 명주 지방의 신복사지, 월정사탑 앞 공양상들과 한송사지 석조보살상들은 두건을 쓰고 그 위에 고관을 쓴 작품들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작품들이다.

위에서 본 나한상들의 경우에도 어깨까지 드리운 두건을 쓰고 있는 상들이 많은데 이 역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표현이다. 불상 이외에도 1024년 서울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상, 1022년 사자빈신사지 삼층석탑의 상 역시 같은 유형에 해당된다. 고려시대에만 나타나는 이러한 보살상, 나한상들의 원형은 당말 오대와 송 그리고 요대에서 찾을 수 있었다.

두건은 머리를 따뜻하게 하거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쓰는 모자이다. 주로 돈황을 비롯한 사막지역의 상들에서 가장 먼저 보이며 주로 지장보살상의 한 형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가장 이른 작품은 10세기경 돈황 석굴의 지장보살도이며, 불상으로는 사천성 대족 복산에 있는 오대 후축의 지장보살상을 비롯하여 대리국의 지장보살상에서도 드물게 제작된다. 즉 두건을 쓴 지장보살상은 10세기경 잠깐 유행했다가 이후 거의 사라지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대에는 보살상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동제관을 썼으며 추운 날씨로 인해 두건을 썼던 사례들이 잘 알려져 있다. 황후는 “皇后御絳帟”<sup>46</sup> 이라 하여 絳帟 즉 진홍색의 두건을 예복으로 사용하였다.<sup>47</sup> 만일 이 위에 황후의 상징인 동제관을 썼다면 강릉 출토의 고려시대 보살상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될 것이다. 일반인들 역시 방한모로서 두건을 쓴 것을 현재 남아 있는 벽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실제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스위스의 Riggisberg Foundation 소장인 방한모는(도 17) 양 귀를 덮으면서 띠로 묶고 뒤에는 리본형 장식을 길게 늘어뜨린 요대의 모자이다.<sup>48</sup> 경릉 동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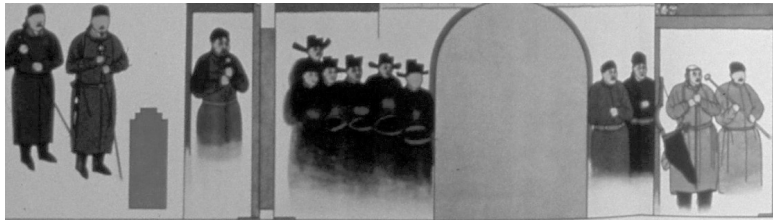


도 17 두건, 요, 스위스 Riggisberg Foundation 소장

<sup>46</sup> 『遼史』卷49 志第18 禮志1 祭山조

<sup>47</sup> 황제도 常服에 折上頭巾을 썼다고 하는데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위가 꺾인 두건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김위현, 『契丹社會文化史論』(경인문화사, 2004), p. 139.

<sup>48</sup> Nancy Shatzman Steinhardt, *Dragons of Silk, Flowers of Gold: Liao Textiles at the Abegg-Stiftung*, Orientations, 2007.9, p. 63



도 18 분묘벽화 인물상, 요, 경릉 동릉



도 19 진적사 석조보살입상, 요, 내몽고 후소묘 석굴



도 20 木台銀棺의 면에 부조된 은제열반상과 제자상, 요, 중경 북탑 출토

의 인물상 가운데 서 있는 남자 가운데는 비슷한 두건을 쓴 남자인물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 18), 여인상 가운데도 짧거나 긴 두건을 머리에 두른 여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듯 두건은 요대의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요대 무덤 안에 그려진 벽화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황제나 황후의 예복으로 사용하는 두건 등 황실에서부터 밑으로는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사용했던 요대의 특징적인 모자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의 유행은 요대의 지역적 특징인 추운 날씨와 관련된다고 본다.

실제 두건을 쓴 요대의 작품으로는 요 상경인 내몽고 파림좌기의 眞寂寺(後昭廟 석굴) 석굴 내의 보살입상(도 19)<sup>49</sup> 그리고 같은 석굴 안에 있는 열반상 옆에서 슬퍼하는 인물을 비

<sup>49</sup> 현재 이 불상에 대한 현지에서의 소개서에는 석가, 문수, 보현의 석가삼존불상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존명에 대

못하여,<sup>50</sup> 중경북탑 출토의 木台銀棺의 면에 부조된 은제열반상에는 부처님의 열반으로 슬픔에 잠긴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어깨에 닿는 두건을 쓰고 있어 주목된다(도 20).<sup>51</sup> 화엄사 대동시박물관에 있는 금대의 소조승려좌상(혹은 나한상) 역시 두건을 쓰고 있어 요대의 전통이 금대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쪽에 위치한 요대의 지정학적 위치나 날씨를 고려해 보면 두건이 요대에 유행했던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그 유행에는 아마도 서역과 가까운 요의 지리학적 위치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와 서역 간의 관계는 1044년 맺은 서하와의 강화조약으로 안정된 교섭을 하였던 데 기인할 것이다.<sup>52</sup> 즉 서역을 통해 두건 그리고 두건을 쓴 피견지장의 도상이 유입되었을 것이며 이후 추운 날씨 등이 고려되어 나한, 승려, 여인들의 복식 등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의 영향을 받은 고려 중기에는 신복사지나 한송사지 보살상, 승려나 나한상들의 모자 형태로 확산되며 14세기에는 두건형 지장보살상으로 계승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2. 화불과 연꽃을 든 보살상의 유입과 확산

고려시대에는 보관에 화불이 있고 손에는 연꽃을 든 보살상들이 특히 많은 점이 주목된다. 앞 장에서 설명하였던 금동보살좌상을 비롯하여 금동불, 석불 등 다양한 재료에서 보이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의 보살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아마도 고려시대에 이르러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도상의 전래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살상들의 존명에 대해서는 관음인가, 미륵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미륵으로 보는 보살상으로는 논산 관축사 석조보살입상이 가장 유명하다. 손에는 철제 연꽃가지를, 현재는 없어졌지만 원래 보관에 화불이 있었다고 하며 은진미륵으로 불려졌다. 충주 미륵대원의 여래입상 역시 손에 연꽃송이를 들고 있는 형상에서 특이하며, 부여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은 현재 보관이 없어져 화불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손에는 현재 윗부분이 없어진 철제 가지만 들고 있지만 연꽃가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보살상들은 기록이나 전해오는 명칭 등에서 모두 미륵으로의 해석이 가능한 작품들로서 보관의 화불과 손에

---

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sup>50</sup> 정은우, 「요대 불교조각의 연구(I)」, 『미술사연구』 13(미술사연구회, 1999), p. 88, 도 1 참조.

<sup>51</sup> 朝陽市北塔博物館 編, 『朝陽北塔』(吉林攝影出版社, 2006), pp. 71-72.

<sup>52</sup> 김위현, 「거란의 대서하정 책(I)」, 『백산학보』 32(백산학회, 1985. 10), pp. 117-224.



도 21 금동미륵보살좌상, 요,  
天津文物公司

든 연꽃가지가 특징이다. 이 두 지물을 경전의 내용으로 해석해 보면, 화불을 가진 미륵 도상은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에 의거한 것이며 이미 통일신라시대 719년에 제작된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에 이미 등장하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높여 준다.<sup>53</sup> 미륵이 손에 연꽃을 들고 있음은 당대에 번역된 『大日經』에 미륵보살이 “오른손은 연화를 쥐고 있는데 그 위에 병이 안치되어 있다”라고 한 데서 연유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일경이 유입되었던 통일신라기에는 없었던 형식이고 병이 없이 연꽃만을 쥐고 있는 점에서 경전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관음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보살좌상이 있다(도 8). 낮은 원통형 보관과 화불, 손에 든 연꽃이 독특한데 이는 지물이 많지 않은 이전 통일신라기의 보살상과 구별되는 점이다. 이 보살상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요대의 보살상과 유사한 점에서 북방으로부터 새롭게 전래된 불상의 유입과 관련된다. 비슷한 보살상이 청주국립박물관에 전시된 석조보살좌상이나, 청암사 수도암의 석조보살좌상 등인데 원통형의 낮은 관과 연꽃을 들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중국 요대 보살상의 미륵과 관음 도상을 이해함으로써 고려시대 보살상의 존명을 재고해 볼 수 있다. 요대에는 미륵의 경우 보관에는 탑을, 손에는 군지(정병)를 든 도상이 유행하였는데 그림이나 조각으로 그 예가 많이 남아 있다. 보관의 탑은 특히 인도에서 유행하였던 형식인데<sup>54</sup> 손에 든 정병과 더불어 불공 번역의 『八代菩薩曼多羅經』에 기인한 것이다. 『팔대보살만다라경』에 의하면 관음보살은 오른손은 여원인을 짓고 왼손에는 연화를 들며, 미륵은 오른손은 시무외인, 왼손은 軍持(정병)를 들며 관 중앙에는 스투파가 있다고 하였다. 보관에 탑이 있는 미륵에 대한 언급은 『大日經』에도 보인다. 이를 따른 요대 미륵보살상의 대표적인 작품이 대영박물관 소장품과 天津文物公司 소장의 금동미륵보살좌상으로 보관에는 탑이 있으며 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다(도 21).

<sup>53</sup> 정은우, 앞의 논문, 『박물관기요』 22(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7), p. 89.

<sup>54</sup> 손영문, 「고려시대 용화수인 미륵도상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52(한국미술사학회, 2006. 12), pp. 122-123.

이에 반해 보관에는 화불을, 손에는 연꽃을 든 보살상은 관음상이 된다. 요녕성 조양에 위치한 조양 북탑의 경당과 천궁에서 나온 석함에는 대일여래와 팔대보살이 조각되었고 각각의 존명이 새겨졌는데 여기서도 미륵은 군지(정병)를, 관음은 여원인에 연화를 들고 있다.<sup>55</sup> 이러한 관음도상의 시원은 오대의 작품에서부터 볼 수 있다. 즉 942년 대영박물관 소장 의 돈황 17굴 관음보살도에서 원통형 보관을 쓰고 손에는 연화송이를 들고 있는 관음의 지물을 확인 할 수 있다.<sup>56</sup>

즉 인도에서 유행하였던 보관에 탑을 가진 미륵상과 화불에 연꽃을 든 관음상이 요대에 는 정확하게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대에 성행한 미륵과 관음 도상 모두 인도와 서역과 관련이 있는 점도 흥미롭다. 요대의 불교조각과 그 도상의 성립에는 돈황을 비롯한 서역 지역의 상들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돈황과 서역 지역과의 빈번한 왕래에 따라 요의 수도 상 경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상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 화불과 연화를 든 보살상은 요대 보살상과의 관련성에서 보면 관음상일 가능성이 높다. 역시 앞 장에서 살펴 본 보관에는 화불이 있고 손에는 연화나 연봉오리를 들고 있는 백의관음이(도 22) 요대에 유행하였고 고려로 유입되어 제작된 점도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려 전기에는 요를 통해 보관에 화불이 있으면서 연꽃을 든 소금동보살좌상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석조나 다른 재료로 확산되고 미륵신앙과 결합하면서 미륵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도상은 고려 후기로 계승된다. 고려 후기 14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금동보살좌상을 보면 현재 보관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손에 연꽃을 들고 있으며, 여래상이면서도 손에 연꽃을 든 1344년경의 금강산 내강리 출토의 금동여래좌상도



도 22 금동백의관음좌상, 요, 요녕성박물관

55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朝陽北塔 考古發掘與維修工程報告』(文物出版社, 2007), p. 90, 도 32.

56 大英博物館 監修, 『西域美術 1』(講談社, 1982), fig 78.

57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Ⅳ』 고려편(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 238, 도 369.

남아 있다.<sup>57</sup>

##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고려 중기에는 다양한 도상과 양식들이 존재하며 그 배경에는 송이나 요, 금으로부터의 새로운 불상들이 유입되었던 데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 중기에는 요나 금 등 북방으로부터의 새로운 요소들이 유입되면서 불교조각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여래상에서는 두 손을 배 앞으로 모은 선정인의 자세가 등장하게 되며 오른쪽 어깨에 편삼을 걸치고 변형통견식의 대의를 걸치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러한 수인 및 착의법은 특히 요에서 거의 정착되며 금대 이후까지 유행하게 된다. 보살상의 경우는 더욱 다양한데 특히 관음상에서 더욱 다양한 도상들이 유입되어 유행하게 된다. 고관을 쓰고 머리에는 두건을 어깨 뒤로 늘어뜨린 형식의 강원도 명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살상 그리고 보관에는 화불을 손에는 연꽃을 든 관음상도 새롭게 등장한다. 또한 백의관음도 제작되는데 정수리에서부터 몸 밑으로 길게 늘어뜨린 백의를 입고 연꽃이나 가지를 들기도 하며 좌상 또는 입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도상들 역시 요대의 상들과 관련된다. 이러한 관음상의 제작은 외적의 침입, 질병 치료, 개인적인 기복 등 다양한 관음신앙과 연결되면서 더욱 크게 유행하게 된다.

고려시대에는 머리에 두건을 쓴 나한상이 유난히 많이 제작되는 점도 특징이다. 피건형 나한상은 머리부터 몸까지 길게 늘어뜨리는 마치 달마와 같은 착의법으로 송대에 유행했던 복두의 나한과는 구별된다. 고려시대에는 어깨까지 드리운 짧은 두건을 쓴 나한상을 비롯해서 보살상들이 보이는데 이는 요대의 상들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요대에는 북쪽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보운을 위해 두건 착용이 유행하였으며, 황후의 예복에도 두건이 착용되는 등 관례화되었다.

두건은 원래 10세기 돈황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된 피건지장보살상에서 처음 보이는데 이러한 형식이 요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여기에 요대 황실에서부터 승려, 일반 인들까지 폭넓게 유행했던 두건 착용과 더불어 더욱 유행하면서 요대의 불상 작품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에서 유행한 두건을 쓴 나한상 도상은 요를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더욱 발전하여 두건을 쓴 보살상과 나한상,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피건형 지장보살상의 유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나한과 지장상의 두건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나한상을 비롯한 고려 중기의 두건은 귀를 덮은 데 반해 고려 후기 지장상의 경우에는 귀를 밖으로 내보이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와 더불어 보관에 화불이 있으며 손에 연꽃을 든 보살상도 주목되는 도상이다. 손에 연꽃을 든 보살상은 당대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인 유행은 요대이다. 요대에는 화불과 연꽃을 든 관음상과 보관에 탑이 있으면서 손에 군지(정병)를 든 미륵상이 《팔대보살만다라경》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화불과 연꽃을 든 관음보살상이 작은 소금동불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대형석불로 이어지면서 고려만의 새로운 미륵도상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송과의 교류나 불교조각과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 요나 금과 같은 북방과의 관련 연구는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 요, 금대의 불교조각이 고려 중기 불교조각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고려 후기까지 지속되는 점에서 중국 북방계 조각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 주제어(key words) \_ 高麗 中期(Mid-Goryeo Dynasty), 遼(Liao), 白衣觀音(White-clad Avalokitesvara), 頭巾(Head scarf), 皮巾羅漢(Arhat with leather head scarf)

## 참고문헌

### 1. 한국 논저

- 강호선, 「불교사상과 신앙의 사회적 확대」, 『신앙과 사상으로 본 불교전통의 흐름』, 국사편찬위원회, 2007.
- 권보경, 「고려전기 강릉일대 석조보살상 연구」, 『사림』, 수선사학회, 2006. 6.
- 김위현, 「거란의 대서하정책(I)」, 『백산학보』 32, 백산학회, 1985. 10.
- 김위현, 『契丹社會文化史論』, 경인문화사, 2004.
- 손영문, 「고려시대 용화수인 미륵도상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52, 한국미술사학회, 2006.
- 장동익, 『宋代麗史資料集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정은우, 「요대 불상조각의 연구(II)」, 『미술사연구』 14, 미술사연구회, 2000.
- \_\_\_\_\_,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고려중기 금동보살입상」, 『불교미술』 18, 동국대학교 박물관, 2006.
- \_\_\_\_\_, 『고려후기 불교조각 연구』, 문예출판사, 2007.
- \_\_\_\_\_, 「개성 관음굴 석조보살상과 송대 외래요소의 수용」,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예경, 2007.
- \_\_\_\_\_,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흐름과 특징」, 『박물관기요』 2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7. 12.
- \_\_\_\_\_, 「고려중기와 남송의 보살상」, 『미술사 자료와 해석』, 일지사, 2007.
- 진홍섭, 『한국의 불상』, 일지사, 1978
- 최성은, 「명주지방의 고려시대 석조보살상에 대한 연구」, 『불교미술』 5,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0.
- \_\_\_\_\_,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대중관계」, 『고려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2004.

### 2. 한국 도록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1999.
-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V』 고려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국립춘천박물관 편, 『구도와 깨달음의 성자 나한』, 2003.

### 3. 외국 논저와 도록

- 『飛來峰造像』, 文物出版社, 200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朝陽北塔 考古發掘與維修工程報告』, 文物出版社, 2007.
- 朝陽市北塔博物館 編, 『朝陽北塔』, 吉林攝影出版社, 2006.

唐彩蘭 編著,『遼上京文物櫛英』,遠方出版社,2005.

李松主 編,『中國史觀雕塑全集』2,黑龍江文物出版社,2005.

監修 大英博物館,『西域美術 1・2・3』,講談社,1982.

Nancy Shatzman Steinhardt, *Dragons of Silk, Flowers of Gold: Liao Textiles at the Abegg-Stiftung*, Orientations, 2007.

## 국문초록

고려 중기의 불교조각은 요나 송 등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유입된 외래요소가 많이 반영된 점이 특징이다. 통견이나 오른쪽 어깨에 편삼을 입은 착의 형식을 비롯하여 선정인을 한 여래좌상, 보관에는 화불이 있으면서 손에 연꽃을 든 관음상, 백의관음, 두건을 쓴 나한상의 유행 등은 이 시기에 새롭게 보이는 형식과 도상들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대체로 중국과 관련되며 요와 금으로 이어지는 북방적 요소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가운데 머리에 두건을 쓴 작품과 보관에 화불이 있으면서 손에 연꽃을 든 보살상은 여러 도상과 서로 결합하면서 공유한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먼저 두건을 쓴 작품을 살펴 보면, 고려시대에는 머리에 두건을 쓴 나한상이 유난히 많이 제작되었다. “第一賓度盧尊者 靈通寺”라는 명문이 있는 청동빈도로나한상, 강화 출토 석조나한상,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석조나한상 등은 모두 어깨까지 내려오는 짧은 두건을 쓴 나한상들인 점에서 공통된다. 머리에 쓴 두건은 나한상만이 아니라 보살상에도 보인다. 강원도 지역의 한송사나 신복사, 월정사 등에 남아 있는 보살상들은 높은 보관 밑으로 어깨까지 닿은 두건을 쓰고 있어 흥미롭다. 높은 보관 형식은 요대의 보살상에도 보이는 특징이며, 두건 또한 나한상이나 상경 지역의 보살상에 보이는 요대의 특징이다. 요대에는 북쪽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보온을 위해 두건의 착용이 유행하였으며, 황후의 예복에도 두건이 착용되는 듯 관례화되기도 하였다.

두건은 원래 10세기 둔황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된 피견지장보살상에서 처음 보이는데 이러한 형식이 요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여기에 요대 황실에서부터 승려, 일반인들까지 폭넓게 유행했던 두건 착용과 더불어 더욱 유행하면서 요대의 불상 작품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에서 유행한 두건을 쓴 나한상 도상은 요를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음은 보관에 화불이 있으며 손에 연꽃을 든 보살상이다. 손에 연꽃을 든 보살상은 당대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인 유행은 요대이다. 요대에는 화불과 연꽃을 든 관음상과 보관에 탑이 있으면서 손에 균지(정병)를 든 미륵상이 『팔대보살만다라경』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화불과 연꽃을 든 관음보살상이 작은 소금동불 형식으로 제작되었고 대형석불에도 보인다. 화불과 연꽃을 든 은진미륵으로 불리는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이나 연꽃만을 든 중원 미륵대원의 석조여래입상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형의 크기와 그 명칭에서 미륵으로 인식된다. 화불이 있는 미륵상은 통일신라시대인 719년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상에서 처음 보이는데 점차 연꽃을 든 불상과 결합되면서 고려만의 새로운 미륵도상이 성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Buddhist Sculptures of Mid-Goryeo reflecting northern tradition

**Jeong Eunwoo\***

Buddhist sculptures from the mid-Goryeo period widely reflect foreign influences, particularly from the Chinese dynasties of Liao and Song. Popular stylistic details and themes in Korean Buddhist sculptures such as the thin sheer silk robe worn by Buddha, the style of dressing in which the robe drapes down from the right shoulder, leaving the left shoulder bare, dhyana mudra assumed by seated Buddhas, Guanyin Bodhisattva (Avalokitesvara) surmounted by a jewel crown sculpted with a transformation Buddha (nirmanabuddha) and holding a blossomed lotus stem in one hand, Guanyin Bodhisattva clad in a white robe and Arhats wearing a head scarf, were all introduced during this period. These characteristics are closely related to the northern tradition of Buddhist sculpture, developed in the Liao and Jin Dynasties.

Of these new features and themes, the head scarf and Bodhisattva wearing a jewel crown with a transformation of Buddha and holding a lotus blossom are of particular interest, insofar as they recur in many different combinations. In Goryeo, there was a large production of Arhat sculptures in which the Arhat wears a head scarf. The bronze Pindola Arhat, bearing the inscription "Jeil Bindoro jonja Yeongtongsa (Pindola, the first of the sixteen Arhats, Yeongtongsa Temple)", a stone Arhat discovered in Ganghwa and the

---

\* Prof. Dong A University

stone Arhat in the collection of Dongguk University Museum are some of the examples in which an Arhat wears a short head scarf whose bottom edge touches the shoulders. Head scarves are not seen only in Arhat statues, but also in some Bodhisattva sculptures. Bodhisattva statues in Gangwon-do temples such as Hansongsa, Sinboksa and Woljeongsa, for example, also don a head scarf, worn under the jewel crown and reaching down to the shoulders. These tall bejeweled head pieces are signature features associated with Liao-dynasty Bodhisattvas. The head scarf, meanwhile, is the telltale feature of both Arhat statues and Bodhisattvas from the Shangjing area, of the Liao Dynasty. Wearing a head scarf was common among people of the Liao, a dynasty based in the northern region, due to climactic reasons. Even formal outfits for the empress customarily included a head scarf.

The head scarf made its first appearance in a Buddhist sculpture with Ksitigarbha Bodhisattva statues, produced around the 10th century, in the Dunhuang region. The popularity of the head scarf in Liao-dynasty Buddhist sculptures could very well have been an influence from this region. The existing custom of wearing a head scarf, prevalent in all segments of its society, from members of the imperial house to Buddhist monks and ordinary people, also probably contributed to its integration into Buddhist sculptures. Hence, it is more than likely that head-scarved Arhat statues of Goryeo were produced under the influence of Liao-dynasty Buddhist sculpture.

As for statues of Bodhisattva wearing a jewel crown with a transformation Buddha and holding a lotus blossom, whilst Bodhisattva sculptures of this type date back to the Tang Dynasty, they became widely popular only once into the Liao Dynasty. During the Liao Dynasty, statues of Avalokitesvara surmounted with a jewel crown with a transformation Buddha, holding a lotus blossom in one hand, were popularly produced, along with Maitreya carrying a kundika, in accordance with information on these deities found in the *Mandala Sutra of the Eight Great Bodhisattvas* (Padaebosal Mandaragyeong). In Goryeo, sculptures of Avalokitesvara with a transformation Buddha on the head piece and a lotus blossom in one hand were mostly small gilt-bronze statues, although a few of them were larger stone statues. The stone standing Bodhisattva of Gwanchoksa Temple, known also as Eunjin Maitreya, with a transformation Buddha mounted on the head piece and a lotus

blossom clutched in one hand, and the stone standing Buddha housed in the Jungwon Maitreya Prayer Retreat, only carrying a lotus blossom without a headdress, are some of examples dating from the Goryeo Dynasty. These Buddhist sculptures are identified as representations of Maitreya Buddha due to their large size and name. The earliest example of a Maitreya statue wearing a crown mounted with a transformation Buddha is the stone Maitreya Bodhisattva of Gamsansa Temple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created in 719. These Maitreya statues gradually merged, over time, with statues holding a lotus blossom, to eventually shape an image of Maitreya unique to Goryeo.